

단지 내 역할이라 생각하고 행하니 이뤄져 있었다

김천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김천 불령산에 자리한 청암사는 신라 헌안왕 때 (859년)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원래 청암사는 조선말 회암정혜(晦庵定慧; 1685~1741) 스님 이후 권상로 고봉 우룡 고산 덕민 스님 등 대강백(講伯)들이 1970년대까지 강석을 펴온 비구 사찰이었다. 1987년, 현 주지이자 강사인 상덕 스님과 강주 지형 스님이 16명의 학인스님들과 발을 들인 후 청암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졌다.

비구니스님들이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청암사는 300년 역사를 지닌 전통불교강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쇠락한 고찰에 지나지 않았다. 상덕 스님은 이곳을 학인스님들과 함께 원력 하나로 일구어 120명이 넘는 비구니스님들이 수학하는 비구니강원으로 탈바꿈 시켰다.

최근 청암사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캠퍼스로 또 한번 변화했다. 이곳 학인 스님들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양방향 전자수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암사스님들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인 우수도 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비구니 우수 무예팀을 갖추고 우수지도자를 배출해 온 청암사는 6월 열린 전국우수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청암사 중흥에 힘써 온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은 조계종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기도 하다. 스님은 지난 7월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를 비구스님의 비율에 맞춰 늘려달라는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방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하는 등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평생 학습의 길을 걸어온 상덕 스님이 다방면으로 활동해 온 원력은 어디에 있을까. 늦가을 만해NGO 우리함께 빌딩 젠더연구소에서 육복면 젠더연구소장과 상덕 스님이 만나 대담을 나눴다.

정리=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상덕 스님은 학승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1965년 서산 개심사로 출가, 동학사 강원과 서울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서울 경국사 법보강원 시절에 수학한 가산 지관 스님으로부터 지형 스님에 이어 비구니 스님으로는 두 번째 전강 제자가 됐다. 현재 청암사 주지 스님이며 중앙종회의원인데, 오랫동안 학승으로 살아온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는 그냥 시골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이 인연이 돼서 내가 처음 입산해서 어른 스님들로부터 배운 승가의 모습을 초심수행자들에게 전승하고 싶었고 단지 그것이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강사를 굉장히 오래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특별하게 전강식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전강식 같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다. 청암사학장 지형 스님은 동국대를 다니면서 (재강을

을 했는데 나에게 권유하여 함께 재강을 하였다.) 청풍암에서 공부하다가 서울 경국사 법보강원에서 졸업했다.

—청암사는 소나무숲이 수려한 자연친화적인 사찰로 유명하다. 처음에는 낡고 쇠락한 고찰이었다고 들었다. 불기운이 사라진지 오래된 아궁이, 기울대로 기울어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건물들, 덩치만 컸지 곳곳이 비가 새는 상태였던 청암사에 짐을 풀고, 비구니강원의 문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화운사 강원에서 강의하던 시절 우연히 한 학인스님에게로 '어불령산(於佛靈山) 청암사'라고 쓰여진 편지가 왔는데 이상하게 편지 봉투의 글귀를 보고 가슴이 막 떨렸다.

그러다 일 때문에 청암사를 찾게 됐는데 김천에서 가는 길이 마치 무릉도원 같아 보였다.

1987년, 지형 스님과 16명의 학인 스님들이 함께 공부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강원을 열고 싶어 하던 차 직지사 조실 영허녹원 스님이 청암사를 경학도량으로 개설하게 하셨다. 우리 눈에는 청암사는 말 그대로 화장세계였다.

낡고 쇠락한 사찰을 비구니 강원으로...

최근 아이패드 도입한 스마트캠퍼스 구축

세계 유일의 비구니 우수 무예팀 갖추고

비구니스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고 있어

처음 청암사에 갔을 때는 엄청 쇠락한 고찰이었다. 비가 오면 곳곳에서 빗물이 썼다. 빗물을 받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였다. 지붕을 뚫고 크게 자란 오통나무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300년 전통의 불교강원이었다는 영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쓸쓸했다. 그래서 당시 청암사 학인스님들은 공부만 할 수 없었다. 도량을 정비하기 위해 고된 노동과 정진을 함께 해야 했다. 당시 청암사를 본 사람들은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만큼 상황이 열악했다.

하지만 지금의 청암사를 방문한 이들은 쓸쓸했던 당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16명의 학인으로 시작된 청암사 강원이 이제는 많은 학인들이 운집한 비구니 강원이었다. 얼마 전 한 비구 스님이 "2010년은 폐강원 리스트에 올랐던 청암사가 2011년에는 비구 스님들도 벤치마킹해야 될 좋은 강원이었다"고 말했다.

—청암사 승가대학과 율원이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학정스님을 비롯한 사중



상덕 스님은 ... 1951년 서울 출생. 1968년 성근 스님을 은사로 개심사에서 출가했다. 1973년 동학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부터 청암사승가대학 강사를 현재까지 맡고 있다. 스님은 1991년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제1기 습의사였으며 1998년 조계종 행자교육원 제14~29기 갈마위원을 역임했다. 현 청암사 승가대학 강사, 청암사 율원 교수, 청암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중들이 올 초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해 활용법을 숙지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강원엔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새 강원에는 젊은 학인스님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또 조계종 교육원에서 강원의 기본 교과목을 개편하면서 많은 교과목이 증가하게 되자 우리 입장에서 개편된 교과목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청암사 강원엔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걱정이 컸다. 그러던 중 청암사 불자인 이백규 전 남대 전자상거래학과 겸임교수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학습을 제안했다. 이 교수의 제안으로 청암사 승가대학은 8월 25일 개강 이후 스마트 캠퍼스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캠퍼스 구축뿐만 아니라 참살이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우수와 경기명상, 유미정사사찰음식 조리법 등에 대한 해설과 동영상도 포함돼 일반인들에게 청암사를 소개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이 넘는 시점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통한 교육은 대중포교와 연결된다. 포교를 위한 원력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까지 만들 수 있었다.

한국불교는 하루라도 빨리 소셜미디어의 웹서비스를 통해 모든 젊은이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불교문화 이미지를 고양하고 신뢰를 얻어 탄탄한 불자층을 형성해야 한다.

각 사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가능한 빨리 모바일 웹 홈페이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총회에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중단이 직접 나서서 시스템을 구축·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2년 2월 청암사승가대학·율원에서는 비구니경학도량 최초로 강원과 율원재학 중 21명이 사회복지 전문학사자격을 취득한다. 2010년 3월에 구미1대학 특수교육계열 아동복지과에 입학한 스님들은 2년 동안의 사회복지 전문과정을 마치고서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실기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1366(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에서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자격도 취득하고,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대승보살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학장 지형 스님의 원력과 결단의 성과이다.

—청암사가 우수(태극권) 특화 사찰로 거듭나기까지 학장 겸 율원장인 지형 스님과 주지인 상덕 스님의 우수에 대한 열정도 한몫했다고 들었다. 우수를 만난 계기는?

청암사는 1997년부터 태극권 수업을 시작해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4년 과정의 우수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우수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형 스님과 40년간 인연을 맺어온 이도호 전국우수연합회장의 역할이 컸다.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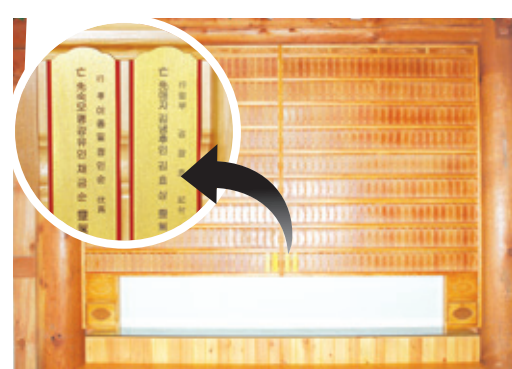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윤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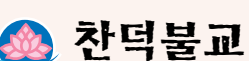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자기효율: 98% / 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이 회장은 청암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4시간씩 우수를 지도하고 있다. 태극권은 8식 16식 24식 32식으로 나누는 무술이다. 1~4학년까지 각각 1단씩 단계가 올라가 4단에 이른다. 청암사에서는 1년에 한차례 승단심사를 하고 있고, 매년 전국우수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태극권의 외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연하고 완만하며 동작들이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켜 입정상태에 이르면 삼매에 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며 순리에 따르는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자아를 찾는 매력도 있다.

(청암사 승가대학·율원 우수팀은 2010년과 지난 6월 제2회 전국우수대회에서 종합3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어떤 비구 스님이 교육현장에서 "여성은 다음 생애 남성으로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거나 삼중지도, 팔경법을 강조하는 법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전에는 부정적인 여성관과 긍정적인 여성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경전을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성의 품으로 성불한다, 못한다의 법문은 의미가 없다. 성불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 재가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전거(典據)가 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성계급제도가 있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비구니스승가를 탄생시켜 성평등을 실현한 최고의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팔경법(비구니가 지켜야 할 8가지 공경법)을 '비구를 우위로 봐야한다'고 해석하면 잘못이다. 여성 특유의 아상(我相)을 소멸하게 하는 비구니에게만 해당되는 수행법이지 그것이 '비구 스님들은 우위에 있고 비구니는 밑에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팔경법은 승가안의 공경법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예법이 있듯이 부처님 법을 공경하기 위해 절서를 만든 예법이라 생각합니다. 팔경법을 비구 승가의 우위를 점하는 법으로 해석한다면 부처님을 성차별한 분으로 격하시킬 소지를 조래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부처님 의도대로 해석해야 하

팔경법이 성차별적이라는 그릇된 견해는

부처님을 성차별한 인물로 격하시키는 것

비구니 스님들 깊이 있는 율장 공부 절실

총회, 비구니 의석수 늘리고 선거권 줘야

는데 서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비구니스님들에게 깊이 있는 율장 공부가 요구된다.

-1954년 정화불사이후 1962년 통합종단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비구니의 권리가 제약됐다. 1994년 개혁종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종단 내 비구니 스님의 역할제한은 곧바로 재가여성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종단 내 비구니 스님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 보는가?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준비부족에 있다고 본다. 계율은 존중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의 청규를 만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예전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신문화 했던 것이 현대의 역할까지 지배하려는 경향도 원인인 것 같다. 비구니 승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만불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교육과 신도조직의 힘도 있지만 비구니스승가의 역할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불교중흥 대토론회의 주제가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였다. 출·재가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승가와 재가는 둘이 아니고 사찰 운영에 있어서 재가신도들과 소통 교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은 스님들도 알고 있다. 조계종단은 비구니와 우바이를 종무원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단을 운영·발전시키는 데에는 출·재가의 구분 없이 평행하게 가야 한다고 본다. 재가불자의 전문적 재가불자의 인맥 구축을 통해서 단단한 불자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의 전통으로는 승가를 존중해야 한다. (불

법이 오래 세상에 지속되기 위해서). 또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 재가와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님과 비구니 총회의원 스님들이 "비구니 총회의원의 수를 최소 1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달라.

(총회의원 비구니스님들은 의석수 개선방안으로 >비구니를 포함한 직능대표 30명 의석수를 비구 15명, 비구니 15명으로 재조정 >총회의원 선거에서 비구니의 선거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 >최소 승남 10년 이상의 비구니에게 선거권 등 참종권 부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비구 승가단의 교단운영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의원 탁연 스님이 <불교성평등을 위한 '종교와 젠더연구소'의 제안으로 의석수 개선방안 부여 등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비구니총회의원스님 일동의 동의를 거쳐 총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제출하기 전에 몇몇 비구 스님들에게 의견을 보여 주면서 의견을 구했더니 "비구니 스님이 무슨 활동을 하나. 창피한 줄을 알라"고 하더라. 기존의 의석수 내에서 종법을 잘 알고 공부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을 안하고 의석수만 늘리면 뭐하냐는 지적이다. 그 말도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비구니 스님 참종권 부여는 반드시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년 3월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그때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로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준비할 것 등이 많다.

-불가여성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달라.

승가는 수행과 전법을 전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은화하다, 서로 뜻이 맞아 사이좋은 상태가 되다)를 좋아한다. '제'의 소양을 많이 갖고 있는 우바이는 불교의 바른 신행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갖고, 승가를 보충감시 해야 한다. 동시에, 불교의 지혜를 가정 친척 친지 이웃 사회에 실천해 불교도를 장엄하는데 역할하기를 바란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퇴임 고불식

간밤에 철지난 은죽(銀竹)이 내리는지 후두둑 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럽다. 한국선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학회에서 필자의 정년퇴임 고불식이 있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 정년이 됐는지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것을 어찌하랴.

답례로 '선과 경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시작의 귀착점이 끝나면 끝 또한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끝이 없는 시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산 기슭을 오르내린지 어언 40년 세월이 흘렀다. 삶의 대부분을 모교에 바친 셈이다. 무슨 고지를 먹은 소자농도 아니려면 학교란 도량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완전 연소시키고자 하는 일에 취함이 아니었을까 회고해 본다.

교수의 일이란 두 가지로 대별될 것 같다. 그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구에 매진하는 일일 것이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일에 선행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 도를 이루면 그 경지를 계속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판무식은 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말더듬이가 아무리 자기 속내를 그려내려고 해도 상대에게는 기별이 와 닿지 않는 일이지가 문자를 모르면 어찌 도의 경지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학교를 오게 된 동기였다.

말과 지식, 이 말은 유사한 듯하지만 판이하게 다르다. 알아만 두 눈을 뜨고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체험이 된다. 이 체험은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가 하면 지식이란 눈 뜨고 본 사람의 정보를 주워드는 것이다.

선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 있다. 이 체험은 언어로 표현된다. 언어를 통한 선은 철학적이고 관념이며 한낱 유희에 불과하다. 언어를 통해 선을 터득하려는 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지도를 보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선과 언어는 만나야 한다. 각각으로 존재해서는 선이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다. 생명이 있는 언어는 그 자체가 곧 선이다. 더 이상 선과 별개가 아니다. 언어를 지닌 선은 살아 있다. 선은 언어를 통해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며, 꽃이 되고 물이 되며,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된다. 선은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글방에서 학동들에게 글을 읽히는데 한 아이는 글을 열심히 읽지 않고 있었다. 훈장은 화가 치밀어 어찌 그리 글 읽기를 소홀히 하는지 꾸짖었다. 그러자 학동은 훈장에게 정중히 묻는 것이다.

"선생을 보면 푸른데[視天蒼蒼], 하늘 천차

는 왜 푸르지 않습니까[天字不靑]"

교단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문에 접근하는 학생을 보고자 했다. 그 결과가 여의치 않은 점은 전적으로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한 내 탓으로 돌린다.

선에서는 직관의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한다. 이 직관(intuition)은 인간 내면세계에 존재해 있던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을 지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지혜는 외부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빌려왔다면 지식일 뿐이지 참 지혜는 아니다.

경허의 제자 가운데 해월 선사가 있다. 선사는 기지가 넘치는 지혜를 발산했다. 부산 선암사에 큰 방 가득히 전국의 강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일자무식이니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라고 하며 준비를 방바닥에 깔고 나서 "이게 무슨 자(字)요?"라고 물으니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선사는 "임금 왕자(王)가 아니요, 흙토 위에 죽바가 놓였으니 말이요"라고 말하고

정상에서의 해돋이는 찬란하지만

내리막길은 편안하고 눈익은 길

호탕하게 웃었다고 한다. 이같이 직관의 세계는 사족이 붙을 수 없고 사랑분별이 따르지 않는다.

반면에 투이션(tuition)은 직관과 판이하게 다르다. 투이션은 밖에서 오는 가르침이다. 소위 티칭이라고 한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가르침을 말한다. 스승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서 익혀 나간다. 어찌 보면 따라 한다는 것이 무미건조 한 듯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회상해 보면 어린 시절 구구단을 열심히 따라 외우고 익혔기에 실생활에 활용해 엄청난 편리함을 느끼게 된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직관의 세계에 고개를 내밀고 기웃거리려는 일이란 준비운동 없이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단순한 의욕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결눈질 하지 않고 외길을 걸은 자신을 생각하면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쉬 없이 원고지를 매워 왔던 결실의 해가 바뀌면 전적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선보일 터이니 작은 설레임도 따른다.

오르는 산행길은 가파르기도 하고 숨도 가쁘다. 정상에서의 해돋이는 찬란하지만, 내리막길은 편안하고 눈 익은 길이며 석양의 일몰도 아름답다. 내 사상과 전리의 요람, 동국대여 영원하라.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쳐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을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